

“SNS 올리려 거기 간다” MZ세대의 ‘인증 샷’

2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에 사는 권민주(26)씨는 SNS에 ‘인증’ (방문사진을 올리는 것)을 하기 위해 동구 동명동을 찾았다. 권씨가 이날 동명동을 이유는 최근 친구가 동명동의 맛집을 다녀왔다고 SNS에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다. 권씨는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집에서 동명동까지 멀고 교통도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들 때문에 방문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부러워 한다”고 했다.

22일 오후 3시께 나주시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은 김현희(26·광주 서구)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인스타그램’에서 ‘핑크몰리 사진스팟’을 검색해 이 카페를 찾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막상 현장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긴 줄이 늘어져 있었지만 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김씨는 2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

‘레트로 식당’·관광지 등 ‘SNS 명소’ 찾아 동분서주 일상 공유·특별한 경험에 ‘1시간 줄서기’ 마다 안해

최근 광주시 동명동·양림동의 맛집, 전남 관광 명소 등 SNS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필수다. 1시간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권씨와 김씨와 같은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최근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맛집’, ‘핫플’로 유명한 식당에서 대기줄을 서서 웨이팅하는 문화가 일상에 자리잡고 있다.

젊은세대들은 개인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특별한 경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 이색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중시하면서 긴 웨이팅을 꺼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화순군의 한 카페의 실내는 이미 만석이었고 밖에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카페 앞 테이블을 통해 조화한 대기열 숫자는 16번으로 입장하기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세대에서 긴 웨이팅을 견디는 이유는 ‘나도 여기 와봤다’는 등의 자랑욕구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명한 곳을 찾아 줄을 서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모든 행동에서 재미는 물론 성취감과 만족감까지 느낀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 입장에서선 긴 줄로 인한 민원 등을 의식해 웨이팅 예약 앱 등을 사용해 젊은 층들의 웨이팅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22일 오후 7시께 동명동에 있는 한 피자 가게에는 대기번호가 21번까지 발급됐지만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게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번호표를 뽑을 수 있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문자로 연락이 오는 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상모(39)씨는 “과거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광고의 효과가 있지만, 최근에는 SNS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긴 줄은 오히려 방문객과 주변상인들의 민원의 대상이다”면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가게 앞에 앉아 기다리려고 하는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해당 앱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하지만 기존부터 단골고객이었던 노인들은 갑자기 생긴 웨이팅 시스템에 어려움 겪고 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옛 감성을 느끼기 위해 ‘레트로 식당’이 유행하자 다니던 식당에 갑자기 웨이팅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모바일로 원격으로 대기열을 등록하거나, 매장 예약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앱까지 등장했지만,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한 고령층 세대를 비롯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동명동 한식집 앞에서 대기하던 박성호(66)씨는 “10년동안 다니던 가게에 두달여전 전에 갑자기 새로운 대기시스템이 생겼다”면서 “처음 테이블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었다”며 하소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5·18 사적지를 듣다’

23일 5·18기념재단과 청년예술가들이 계획한 장소 이동형 오디오 씨어터 공연 ‘콘크리트 보이즈’에 참여한 관객들이 광주시 동구 옛 적십자병원을 탐방하며 음성을 통해 들리는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동료 교수 반복 폭행’ 전남대 학과장 경고 조치

단과대엔 기관 경고

전남대가 대학 내에서 교수가 동료 교수를 반복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단과대와 학과장에 경고 조치했다.

2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정성택 총장은 직권으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단과대학에 행정상 기관경고, 학과장에는 신분상 경고 등을

각각 조치했다.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남대 측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을 두고 지난 12일 열린 전남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차 폭행 후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폭행이 추가 발생하는 등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는 폭행 사건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착수하기로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단과대와 학과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 직권으로 경고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철학과 40대 A교수는 지난 8일과 20일 동료 여교수에게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은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에 고소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화재현장 10곳 중 4곳 ‘골든타임’ 놓친다

7분 이내 도착률 57.1%

올해 전남 화재현장에 40%가 넘는 곳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만(인천시 부평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전남지역 화재현장의 7분이내에 도착한 도착률은 57.1%였다.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엔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출동 목표 시간을 7분으로 설정했지만, 전남지역 화재 출동 평균 시간은 8분 20분으로 7분 골든타임을 지

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소방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면적도 2.74km²로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3.77km²), 경북(3.43km²)에 이어 세번째로 넓었다.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이 넓은 이유로 신규 소방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정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과 2021년에 전남지역에 새롭게 충원됐어야 할 소방인력은 각각 5390명, 5680명 이지만 충원된 인력은 2020년 4006명(74.3%), 2021년 4450명(78.3%)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충원률을 기록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환경오염신고 7700건…포상금 ‘0건’

광주 지난해는 1건 그쳐…지자체 자율에 맡긴 예산 편성 탓

올해 광주시에 7700여건의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광주시에 7772건의 환경오염이 신고됐지만 포상금 지급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환경오염 신고가 1만3810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단 1건, 10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낮은 보상금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전남지역은 지난해 1만1203건이 접수돼 13건(12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올해에는

4615건 접수돼 8건(7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5일 환경범죄대응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신고는 이어지지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 자율에 맡긴 예산 편성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신고는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